

밤 생산과 당면과제

올해의 수매자금 124억원

김 영 달 / 산림청 이용과장

1. 머리말

지난 1·2차 치산녹화 10년계획 기간중 방대한 면적의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전국산림면적의 83% 이상이 아직도 2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들로서 목재를 이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볼때 임업의 장기회임성이라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 산림소득원을 확대해 나가는 일은 임업정책상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밤나무 조성사업은 임산물 단기소득원사업의 일환으로 1960년대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현재 그성과가 가장 큰 품목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야산에서는 옛날부터 달고 맛있는 밤이 생산되었으나 1960년대를 전후하여 밤나무 흑별이라는 무서운 해충피해를 받아 전체의 밤나무가 거의 멸종

되다시피 하였다. 그리하여 그당시 정부에서는 일본국으로부터 내충성 밤나무 접수를 수입하여 마을양묘 체계를 통한 대대적인 양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생산된 묘목을 “국민식수운동” 전개로 많은양의 조림을 전국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당시 경남지방에서는 은행에서 돈을빌려 기채사업으로 대대적인 밤나무 조림을 하였고 전남북 지방에서는 “곡수단지조성”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많은면적의 밤나무를 조림 하였으며 중부 이북지방에서도 내한성 밤나무 품종이 보급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밤나무 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전국에 걸쳐 관리되고 있는 밤나무 조성지가 10만ha에 달하고 있다.

1988년말 현재 밤 생산에 직접참여하고 있는 생산자수는 약 70천가구로서 매년 약 80천 M/T의 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가액이 750억원에 이르고있다. 이는 임업총생산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업생산품목중 단일품목으로서는 가장 비중이

연도별 밤 생산량 및 수출실적

연도	85	86	87	88
구분				
○생산량(M/T)	72,000	58,411	57,047	77,648
○수출량(〃)	23,594	30,053	35,849	40,015
(수출액)	(37,427천\$)	(53,072천\$)	(83,957천\$)	(91,852천\$)

88년도 도별 밤생산량

(단위 : M/T)

도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생산량	77,648	1	11	31	11	180	4,042	1,791	840	10,453	7,903	17,692	4,920	29,768	5
%	100	-	0.01	0.04	0.01	0.23	5.21	2.31	1.08	13.47	10.19	22.75	6.35	38.35	-

높을뿐 아니라 해마다 약40천M/T의 밤을 외국에 수출하여 1억불 상당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2. 문제점

이상과 같이 밤은 임업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밤 재배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몇년전만 하여도 밤나무 20여ha만 조성해 놓으면 노후 복지대책으로 가장좋은 사업이라고들 하였으나 요즘 형편으로는 그렇지 못한것같다. 최근 밤 재배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고 있음은 생산자들이 직접 당하고 있어 잘 알고 있을것이나 그중 몇가지 문제점을 들어 보면

첫째 : 노동력 문제이다. 최근 농산촌 공동화현상이 날로 심각해져감에 따라 밤 재배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노동의 질 또한 고령화되어 작업능률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밤생산량의 대부분이 노임으로 계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임의 상승은 오랫동안 땀흘려 가꾸어 놓은 밤나무단지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기계화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나 대부분의 밤나무 단지가 산지에 조성되어 있어 충분한 임도시설이 되지 않는한 기계투입이 어

렵고 밤의 경영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기계작업 방법의 개발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밀도높은 임도의 확장과 밤재배에 알맞는 기계의 개발이 곧 앞으로의 밤사업 성공여부를 결정짓게 될것이 확실하다.

둘째; 세계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밤 수출에 대한 국제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갈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밤은 주로 일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웃 중국에서도 약 30천M/T의 밤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밤은 알이 굵고 질이 좋아 가공용으로 소비되고, 중국밤은 알이 작고 당도가 높아 군밤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일본 시장에서 큰 마찰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도 한국밤과 같은 품종을 개량하여 보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그넓은 땅에다 저렴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품질이 좋고 값이싼 밤을 대량 재배하여 일본에 투매 한다면 우리의 밤 생산이 어떻게 될것인가? 아찔한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수없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지금부터 이에 대응해 나갈 방안을 연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우선 현재의 밤보다 더욱 우수한 품질의 밤생산을 위하여 차세대 품종을 마련하는 일이다. 21세기에는 세계적인 종자전쟁이 닥쳐 올것이라 예언

하는 학자들이 있음을 감안 할때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이를 잘 관리하여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한다.

그다음 구라과와 미주역에까지 밤을 수출할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선을 다변화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는 장기간동안 원거리 수송에서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가공법을 개량하여 그나라 국민에게 각각 알맞는 선호품을 만드는 일이다.

F. A. O 통계에 의하면 세계 밤생산국

일본의 밤 수급 현황

구분 \ 연도	'84	'85	'86	'87
총 수요	102,713	99,936	11,8536	117,762
생 산	46,719	48,200	53,700	52,000
수 입	55,994	51,736	64,836	65,762
-한 국	27,883	22,970	29,930	35,711
-중 국	27,890	24,940	34,644	29,813
-이탈리아	183	99	219	215
-기 타	38	3,727	43	23

은 10여개 국이나 되며 세계 밤 총생산량은 576천M/T으로서 그중 중국이 세계총생산량의 44%에 해당하는 255천M/T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한국밤의 주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밤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자국산 밤나무의 노령화와 높은 인건비의 압력등으로 자국 밤 생산량을 증대 시키기는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연간 수요량 118천M/T의 56%에 해당하는 66천M/T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총수입량의 54%를 한국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를 주로 중국에서 수입 충당하고 있다. 이와같은 세계 밤 시장을 감안할때 무역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셋째; 밤은 가을에 수확하는 계절적인 상품으로서 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있다. 따라서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생산자들이 땀흘려 지어놓은 아까운 상품을 제값도 못받게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위험성을 언제나 안고있다. 따라서 저장기술을 개발하고 시설

세계의 밤 생산현황

(단위 : M/T)

구분 \ 연도	'80	'83	'84	'85	'86
계	530,043	587,133	565,789	555,340	575,711
한 국	42,826	72,000	66,000	72,000	58,411
중 국	210,000	230,000	240,000	240,000	255,000
일 본	47,000	53,500	46,719	48,200	53,700
북 한	5,500	7,000	8,000	9,000	9,400
터 키	58,500	55,000	57,000	55,000	59,000
이탈리아	63,384	76,729	50,939	50,000	50,000
프 랑 스	24,428	17,000	16,000	13,000	15,000
포르투갈	20,224	18,846	18,000	17,000	16,000
스 페 인	24,303	19,000	18,000	18,000	20,000
기 타	33,878	38,058	45,131	33,140	39,200

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가공시설의 확대, 수매자금의 적기방출등 복합적인 장치를 연구하여 생산자의 손실을 최소한 방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시책적인 추진을 해 나가야 할것이나 무엇보다 생산자들이 합심단결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밤 소비확대 문제이다. 옛날에는 제사에 필수적인 과실로, 또는 시골 어린이들의 군것질에 적당한 그야말로 산림부산물에 지나지 않았으나 근래에 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그 소비량이늘어가고 있다. 1인당 밤 소비량을 보면 일본이 970g/년인데 비하여 한국은 890g/년으로서 우리나라 국민 1사람이 연평균 밤 1되정도 먹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농경지는 협소하며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마다 막대한량의 식량과 가축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

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영양가가 높은 밤을 국민식량차원에서 개발 보급한다면 밤 소비량이 상당히 늘어갈수 있을것이며 산지이용면에서나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는 조리가 간편하고 맛이좋은 식품으로 개발하여 국민들이 밤을 상식할수 있도록 보급하는데 노력해야 할것이다.

다섯째; 조림에서 육림, 수확에 이르기까지 생산과정의 체계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작업방법을 연구 함으로서 생산비를 줄여 나가야 할것이다.

수요가 공급을 이끄는것과 같이 공급이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것이다. 값싸고 질좋은 밤을 시중에 많이 공급할수만 있다면 다양한 식품 재료의 많은 부분이 밤으로 대체될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밤의 절대수요량은 순식간에 늘어나게 될것이며 밤 사업의 앞날이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경영비를 줄여 남보다 값싸고 품질이 좋은 밤을

자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 자 금 액		비 율 (%)	한 도 액	용자 기 간	이 율
	'88	'89				
계	9,918	12,360				5%
• 밤출하조절 (농안기금)	6,000	6,000	100	10백만원	1년	5%
• 수매자금 (농안기금)	3,000	5,000	167	수출실적	6개월	10%
• 입산물이용가공 (농어촌개발기금)	618	464	75	사업비의 80%	10년 (3 / 7)	8%
• 저장시설 (농어촌+재특)	300	896	299	1억원	5년 (3 / 2)	5.5%

※ 밤출하조절및 수매자금은 9월중 대출 예정이며 기타자금은 지원중에 있음

많이 생산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상과같이 밤생산에대한 당면한 주요과제 몇가지를 들어보았으나 그이외에도 병해충방제, 태풍과 한발로인한 기상적인 피해등 예기치않은 어려운일들이 많을것이다.

3. 올해의 정부지원 시책

정부에서도 밤 생산산업을 돕기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림개발기금, 농안기금, 농촌개발기금 등에서 124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수확기에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공및 저장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수매자금을 적기에

배정하는등 자금지원을 통한 생산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임업연구기관을 통하여 밤재배기술과 생산비절감을 위한 경영방법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다른한편 식품가공 연구기관에 새로운 밤가공법과 포장법을 개발토록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는등 산림청에서는 Hel기를 각지방에 배치하여 매년 약 40천ha의 밤나무 해충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책은 정부에서만 추진한다고 하여 되는일이 아니며 밤생산자 여러분과 긴밀하고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데서 만이 그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임업후계자에게 담보없이 3%로 융자

산림개발기금에서 - 1인당 740만원까지

산림청에서는 최근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과 특히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속성때문에 산주가 산림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농산촌에 정착하여 임업에 종사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임업후계자는 '89~'97까지 10년 동안에 연간 100명씩 총 900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에 50명이 기피 선발되고 계속 선발중에 있다.

올해에 이들 임업후계자에게 융자지원할 융자규모는 총 222백만원으로써 융자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 이자율은 3%로써 담보없이 1인당 7,400천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하였다.